

경마 디지털화·기후변화 대응 비전 제시

폭스 스포츠-뉴욕경마협회 협력
매년 700시간 이상 콘텐츠 제작
경마장 운영 '탈탄소 전환' 고민
바레인·사우디 파트2 국가 승격

7일 세계 경마계의 흐름과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제55회 국제경마연맹(IFHA) 연례 총회'가 온라인을 통해 열렸다. IFHA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온라인으로 총회를 진행했다. 이번 총회는 IFHA의 신임 회장인 윈프리드 엥겔브레트 브레스게스가 주관하는 첫 총회다. 엥겔브레트 브레스게스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공정 경마,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성, 마케팅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총회는 경마의 디지털화와 말복지,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 가장 관심을 끈 분야는 마이클 멀비힐 폭스 스포츠 총괄 부사장이 참석한 경마의 디지털화와 미디어 협력이었다.

멀비힐 폭스 스포츠 부사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는 TV로 경마를 접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며 "이는 폭스 스포츠와 뉴욕경마협회의 협력에서 비롯됐다"고 소개했다. 뉴욕경마협회는 뉴욕주 벨몬트 파크, 사라토가 경마장에서 경마를 진행할 독점권을 갖고 있다.

멀비힐 부사장은 "2016년부터 시작한 폭스 스포츠와 뉴욕경마협회의 협력 관계는 초기에는 80시간 정도였지만 현재는 약 10배 정도 늘어났다"고 밝혔다.

폭스 스포츠는 뉴욕경마협회와 2030년까지 방송계약을 연장했으며 향후 뉴욕주 벨몬트, 사라토가 경마장에서 열리는 경주로 매년 700시간 이상의 방송 콘텐츠가 만들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폭



7일 제55회 국제경마연맹(IFHA) 총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신임 회장인 엥겔브레트 브레스게스 회장(사진)은 그동안 한국을 두 차례 방문하는 등 우리나라 경마산업과 친숙한 인물이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스 스포츠는 단순한 미디어 분야의 협력뿐만 아니라 뉴욕경마협회의 베팅 플랫폼(NYRA Bets)에 대한 지분 25%도 소유하고 있다. 또한 나머지 24.9% 지분을 획득할 수 있는 옵션도 가지고 있다.

지난해 8000만 가구가 시청하는 폭스 스포츠 채널1을 통해 경마를 중계하면서 시청률과 매출 부분에서 큰 성장을 이뤘다. 뉴욕경마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여름 시즌 사라토가 경마장 베팅금액은 8억 1500만 달러로 2019년의 7억630만 달러에 비해 1억 달러 넘게 매출이 늘어났다. 폭스가 지분을 보유한 'NYRA Bets'의 발매 역시 2016년 720만 달러에서 2020년 2억2500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멀비힐 부사장은 "앞으로 사우디컵, 두바이 월드컵 등 해외 경주 방송에도 나서고 싶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사우디컵, 아시아 대표 경주로 급성장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성 섹션은 뉴욕 양키스의 환경 과학 고문 앨런 허쉬코위츠 박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허쉬코위츠 박사는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위험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란 테마의 발제에서 "세계 여러 스포츠 단체들과 플라스틱 빨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환경 문제에 대한 경마 시행체들의 인식이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기가 활용, 경마장 부지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 등을 소개하며 "특히 탈탄소로의 전환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온라인 공급을 시행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회에 앞서 국제경마연맹 산하 국제경주분류위원회(IRPAC)는 바레인인과 사

우디아라비아의 파트2(Part II) 국가 승격을 승인하고 일부 국제 경주에 대한 등급을 상향했다. 우리나라의 국제 경주인 '코리아컵'과 '코리아스프린트'가 코로나19로 인해 2년째 멈춰선 것과 달리 중동 국가의 경마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단일 경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금인 2000만 달러를 내걸었던 '사우디컵'은 이번에 파트1 국제 그레이트 경주(GI)로 인정받았다. '사우디컵'은 올해 한국마사회 소속 닥스고 4위를 차지한 대회로 국제 경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한편 IFHA 총회와 함께 열린 프랑스 개선문상에 이어 11월에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경마 빅이벤트인 호주 멜번컵과 미국의 브리더스컵이 연이어 열릴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지난해 서울마주협회장배를 우승한 이스트제트.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한국경마 챔피언십 시리즈 개최 장·단거리 통합 '최고마' 가린다

18개 대상경주와 함께 트리플 크라운 등 시행

10월 들어 연기했던 대상경주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올해 한국 경마의 왕좌에 오를 경주마는 누가 될지 관심이 뜨겁다.

한국마사회는 9월 4분기 경마계획을 공개하면서 대상경주와 최우수마 선발 시리즈 계획을 밝혔다. 앞으로 남은 일정 동안 18개의 대상경주를 시행하고 '트리플 크라운', '트리플 티아라'도 운영한다.

특히 한국마사회는 장·단거리를 망라한 국내 최고의 경주마를 가리는 통합 챔피언십 시리즈를 진행한다. 한국마사회는 당초 스테이어, 스프린트 시리즈 등 장·단거리 최우수마를 선발하는 시리즈를 개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정상적인 레이스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운영계획을 수정했다.

한 해 대표마를 선발하는 '코리아 프리미어'(Korea Premier) 시리즈 역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올해도 남은 4분기에 대상경주를 압축해 진행하기 때문에 스테이어, 스프린트 시리즈를 통합한 챔피언십 시리즈를 통해 연도 대표마 선정을 진행한다.

챔피언십 시리즈는 서울 경마공원에서 24일 열리는 SBS스포츠스프린트(GIII, 1200m, 3세 이상, 총 상금 3억 5000만 원)와 KRA컵 클래식(GII, 2000m, 3세 이상, 총 상금 4억 5000만 원)으로 시작한다. 11월에는 서울마주협회장배(GIII, 1200m, 3세 이상, 총상금 3억 5000만 원)와 오너스컵(GIII, 1600m, 3세 이상, 총상금 3억 5000만 원), 대통령배(GI, 2000m, 3세 이상, 총상금 6억 5000만 원)가 열릴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12월에 그랑프리(GI, 2300m, 3세 이상, 총상금 6억 5000만 원)까지 진행된 뒤 총 6개 경주에서 1~5위 안에 입상한 말들에 포인트를 부여해 누적된 승점을 기준으로 챔피언십 시리즈 영광의 주인공을 선정한다.

대상경주 등급에 따라 부여되는 승점이 다른데 가장 등급이 높은 GI 경주는 1위를 하면 800점을 받으며 GII 경주 우승마는 600점, GIII에서 우승하면 400점을 획득한다. 챔피언십 시리즈 최종 1위부터 3위까지의 마주와 조교사에게 최우수마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국마사회는 챔피언십 시리즈 인센티브 대상말(최종 1~3위)이 내년 두바이월드컵카니발(DWCC) 출전을 위한 원정등록 및 출국 수송을 완료하면 순위별 지급액의 100%를 추가 지급한다. 김재범 기자

하반기 온라인 문화센터 수강생 모집

한국마사회 문화센터가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온라인 비대면 강좌를 진행한다. 수강접수는 28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온라인 문화센터는 요가, 줌바댄스, 트로트교실 등 성인대상의 취미강좌부터 어린이들을 위한 영어책읽기, 창의역사, 종이접기 등을 준비했다. 강좌는 6주

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수강료는 1인 기준 1만원에서 1만5000원 수준이다. 수업의 집중도를 위해 강좌별 정원을 20명으로 제한한다.

대국민 아이디어로 공공서비스 혁신

한국마사회는 13일 '제1차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특별상

수상 아이디어와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마사회는 특허청 주관의 '제1차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해 '생활습관 예약 애플리케이션 말타의 활성화 아이디어'와 '마사회 문화공감센터 모바일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등 2개의 과제로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특별상(마사회장상)은 전지혜·박정숙씨의 '승마의 시작은 말타와 함께'가 선정됐다. 장려상(말병진흥회

장상)은 문화공감센터 모바일 홈페이지 디자인에 지역친화 사업과 어울리고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UI를 제안한 이수연씨가 받았다. 송철희 한국마사회 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국민 참여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혁신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외식업 전문가의 분석! 해산물 요리가 대박 성공아이템

코로나 19 지속적인 불황에 장사가 안되시면 해산물 요리집으로 간판만 바꿨다 성공하세요

- ✓ 초보자들도 쉽게 운영이 가능한 반조리 식품이라 주방이 편하고 인건비가 저렴
- ✓ 남들이 할 수 없는 독특하고 뛰어난 메뉴구성

330 만원으로 쉽게 **OPEN**

맛, 메뉴, 가격에 놀라고! 매출, 수익에 놀라고! 회사 지원에 놀라고!
외식 창업이나 업종전환 하실분! 순간의 선택이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꼬막비빔밥

꼬막비빔국수

배생이굴국밥

바지락 미역국

동태탕

황태해장국

추어탕

알탕

꼬막야채무침

황태구이정식

아구찜

동태내장전골

힘든 자영업자들을 위한
500만원 지원!!

다시금의보감농수산

부자되는 브랜드
가맹점 / 취급점 모집

문의 T.1588-3892